

# 유네스코 세계유산 화순고인돌 유적지에 정원 조성

## 생태연못·수국갤러리·들꽃마루 등 들어서...문화 도시 상징 기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화순군 고인돌 유적지와 어우러지는 정원이 조성된다. 화순군에 따르면 고인돌 정원은 총사업비 69억 원을 들여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 약 7만9000㎡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은 고인돌 유적지에 진입하는 핵심 공간이지만 현재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어 경관적 가치가 떨어진다. 정원은 문화 자원과 연계한 유일한 지방 정원으로서 이 고인돌을 풀어내면서 역사·문화 도시라는 상징적 의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인돌 정원은 진입 마당과 생태연못(축제 마당), 수국갤러리, 들꽃마루 등으로 공간을 나눴다. 공간마다 고인돌 풍경과 조화되는 바위 테마의

특화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고인돌 유적지 진입부이자 상징적 공간이 될 진입 마당은 고인돌 축조 과정을 화강석에 새긴 돌길을 걷는 것으로 시작된다. 은행나무와 꽃대나무, 은목서, 왕벚나무 사이로 과바위와 감태 바위 등 테마 바위가 놓이거나 어린 이를 위한 거석 놀이터가 만들어진다. 생태연못 주변으로는 느티나무와 단풍나무, 노랑꽃장포 등이 심어져 탐방객들을 맞는다. 지역의 각종 행사와 축제를 열 수 있도록 잔디마당과 구름 쉼터도 이곳에 만들어진다. 지난해 11월 같은 장소에서 가을꽃 축제를 열며 정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보기도 했다. 수국갤러리는 화순 고인돌 종류인 관청 바위 고

인돌군의 유례를 재해석한 경관 쉼터를 만든다. 관청 바위란 '월님이 내려다보며 관청 일을 처리했던 바위'라는 뜻이다. 구름의 자연 지형을 이용해 축제가 열리는 잔디마당을 내려다볼 수 있는 축제의 언덕도 조성한다. 정원의 끄트머리에 위치한 들꽃마루는 선사시대 생활상인 들판 경관을 모티브로 목가적 풍경을 기반으로 한 포토존과 휴게공간이 마련된다. 이렇게 연결된 정원을 걷다 보면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로 자연스럽게 진입이 되도록 구상했다. 화순군은 이번 정원 조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주변 7만7천㎡를 추가로 정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역사 문화 도시 화순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침체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화순 고인돌정원 조성 계획도.

# 화순군,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

## 140억원...18일까지 신청 접수

화순군이 '2025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8일까지 군청 지역경제과에서 받는다.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 지원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내에서는 화순군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창업·확장, 이전해 제조업, 광업(석탄 제외), 관광레저업, 문화콘텐츠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대상이다. 특히, 화순군 관내 모든 농공단지 폐광지역진흥지구 포함되어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이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40억원으로, 시설자금은 30억원 한도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10억원 한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분

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 및 한국광해관리공단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희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관내 기업들의 사업확장 및 운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담양군, 영세 음식점 공공요금 30만원씩 지원

## 민생안정 종합대책 추진

담양군이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30만원을 지원한다.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민생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16일 기준 담양군 내 사업장 등록·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으로 상

시 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 1억4000만원 미만(간이과세자 기준)인 업체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등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시는 최근 동신대학교에서 초등 4~6학년생 88명을 대상으로 2주간 진행한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나주시 제공>

# 장흥관산농협, 장흥군에 장학금 1000만원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는 최근 장흥관산농협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써 달라며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장흥관산농협 정기총회를 맞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관산농협에서 진행됐다.



오형주 장흥관산농협조합장은 "새해 우리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 기탁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학생들의 소원과 재능개발 등에 지원하여 창의적 인재양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기부금은 장학회의 장학생 선발 지원 및 해외 비전 캠프 등 다양한 장학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인 김성 장흥군수는 "장학금을 전달해 주신 농협 임직원 여러분들의 뜻깊은

마음에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장학금 기탁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나주시 12년째 초등생 영어캠프...과외비 경감 등 호응

## 수준별 커리큘럼 맞춤형 교육

## 2012년부터 누적 2885명 수료

나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2년째 시행 중인 영어교육 지원 시책이 과외비 경감과 학생 어학 수준 향상으로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명의 학생들에게 수준별 맞춤형 커리큘럼 제공 등을 통해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줬다. 동신대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 영어 기초 과정을 강화하고 신문·방송·뉴스 제작 등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반 편성과 모든 수업을 원어민 교사와의 영어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해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주희 총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대표 교육기관으로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초등생 영어캠프에 이어 중학교 2학년생 30명을 대상으로 오는 1월31일부터 19일간 미국 어학연수도 계획하고 있다. 메릴랜드주 세인트 빈센트 팰로티 하이스쿨에서 정규 수업과 홈스테이 체험, 명문대학 탐방 등을 통해 외국어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견문을 넓힐 예정이다. 나주시는 영어캠프, 해외 어학연수 외에도 원어민 화상영어, 서울 강남권 학원 인터넷강의 수강권 지원, 한국에너지공대와 협력한 회화 중심의 영어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에 힘을 쏟고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 전시판매장 현대화

## 관요·민간요 매장 리모델링

강진군이 고려청자박물관 내 청자공동전시판매장의 일부를 현대적인 쇼룸으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청자 생활자기의 대중화를 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통 청자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며, 청자 판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은 총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자공동전시판매장의 관요·민간요 매장을 리모델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강진 청자가 전통적인 이미지를 넘어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을 소비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약 350㎡ 규모로 조성될 쇼룸은 거실, 주방, 사무실, 카페 등 공간별 테마로 꾸며지며, 청자의 실용성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민간요 판매장도 생활자기 중심의 진열대 교체 등을 통해 더욱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청자 전시판매장의 단조로운 진열 방식으로 인해 방문객들의 구매 욕구가 낮아졌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되는 쇼룸은 청자 전시·판매·포토존을 통합한 공간으로 운영할 예

정이다. 청자 홍보를 강화하고 SNS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잠재 관광객의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강진군은 본 사업을 통해 청자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청자촌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지난해 8월 부터 시작한 공사는 올해 초 완공될 예정이며 제53회 강진청자축제를 앞두고 관요 판매장에서는 최대 30% 할인행사를 준비중이다. 강진군 강진군은 "이번 쇼룸 조성 사업이 전통 청자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강진 청자의 가치를 재조명할 기회가 될 것이다"며 "청자 문화유산의 보존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담양군 아간민원실.

# 담양군 올해도 매주 화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

## 여권·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등 이용자 꾸준히 늘어

담양군이 주민들의 편리한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해 매주 화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야간 민원실은 직장인과 학생 등 군민의 바쁜 일정을 고려해 평일 저녁 시간대에도 담양군 민원실을 운영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야간 민원실은 여권,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민원이 총 164건 중 90%(148건)를 차지했고, 특히 여권 발급은 최근 급증한 해외여행

에 따라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큰 인기를 끌었다. 야간 민원실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별도 예약 없이 현장방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군민들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계적 개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올해도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